

다음주 청와대 참모진 부분교체 가능성

국정공백·후임 인선 등 현실적 제한으로 사태 관련 참모 대상... 우병우·문고리 3인방 교체 여부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정쇄신을 위한 '심사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다음주께 우선적으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부분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 청와대 참모진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와 후임 인선이라는 현실적 제한 때문이다.

당초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었던 지난 25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정무수석이 새누리당과 뜻을 같이 해 전일 사표 제출을 주장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일부 참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박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날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처벌과 국정쇄신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당의 재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은 참모진 개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과문에 인적쇄신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최씨의 도움을 받은 게 누군가의 개입이 아닌 본인 의사였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참모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국민사과 카드에도 불구하고 최씨의 국정농단을 증명하는 추가 폭로들이 잇따르고 여론이 민감한 당에서 참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해 잠겨 있다.

진 전면개편을 압박함에 따라 인적쇄신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산업 구조조정 및 주요 기업들의 부진으로 안보·경제의 이중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개편보다는 이번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일부 참모들에 대한 선별적 교체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한 만큼 그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참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후임자 인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정호성·안봉근·이재만 비서관 등 누구보다 박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온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교체 여부다. 여야의 참모진 개편 요구도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경우 JTBC가 전날 최씨의 PC에서 발견된 4건 문서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와 일치한다고 보도해 연설문 유출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비서관 본인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교체 가능성도 주목된다. 일각에서

는 우 수석 발탁에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미 국회 운영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 불응으로 고발을 의결한 상황이어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과 관련해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포함 여부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연설문 사전입수 의혹에 대해 "병진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해 위증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생생마을 로컬푸드 토요일' 29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10~30% 할인

전북도와 농협전북지역본부가 '생생마을 로컬푸드 토요일'을 운영한다.

양 기관은 도내 우수마을상품과 지역 우수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오는 29일 전북도의회 광장에서 토요일장을 연다.

'생생마을 로컬푸드 토요일'은 14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마을 상품 및 로컬푸드 농산물을 유통단계 없이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 시중보다 1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토요일장에는 20여개 부스에 14개 시·군 4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 25~26일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의 김장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가 대비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배추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요일장은 지난 5월부터 7회를 운영해 1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민형 기자

민주당 "최순실 특검" 야당이 추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야 논란이 없어진다"며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별도의 특검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박원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번 특검 대상에는 청와대가 포함된다.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2012년에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사건은 특검법을 만들었다"고 말한 뒤, "MB 정부 사저 문제 때도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개입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안을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명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은 (조사기간이) 60일로 돼있는데 (특별법은) 1차로 3개월이 돼야 하고, 한 번 또는 두 번 더 연장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견검사 규모도 지금 (상설특검) 제도는 5명인데, 최소 10명은 돼야 한다"며 "이 사태가 언론에 의해 촉발되고 심화된 만큼 수사과정에 대한 홍보, 브리핑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춘석 의원, 최순실 관여 '삼성' 엄정 수사 촉구

"기업이 돈으로 권력 매수하는 행태에 철폐 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난 26일 열린 예정위 종합정책질 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관여한 삼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 공정위원장, 복지부 장관 등을 향해 "삼성이 돈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를 관리했다는 X파일 사건이 터진지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최순실 재단 조성에 앞장선 것은 물론 최씨 모녀를 잡기 위해 수십억대 승마 비용까지 지출했다는 구체적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유독 삼성만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독일과 한국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르·K스포츠 모금을 주도한 삼성에 참목하는 수사당국을 질타하며 또 다시 정부와 법조계가 '삼성 비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또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 삼

성물산 인수합병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재벌이 완전히 법 위에 군림한다고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은 손해가 5,900억원이라는 추산이 있다며 정상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인용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 들어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주는 구조가 옳은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벌이라 해서 숨겨주고 묻개는 것은 또다른 국기문란이라고 강조

한 이춘석 의원은, "다시는 기업이 돈으로 권력매수하고 정치인 사고 법조인 사는 것 할 수 없도록, 삼성을 본보기로 확실하게 엄단하기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용 법무부 장관은 "삼성의 혐의가 인정되고 범죄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이라며 삼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4일 삼성의 새만금 20조원 투자 MOU 철폐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삼성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수백억을 내놓으면서도 새만금 투자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삼성의 모순된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새누리 "지도부 안바꾼다. 이정현 재신임"

새누리당은 27일 비박계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이정현 지도부' 재신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면 비공개로 최고위를 소집한 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지도부는 언제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의회에서 현재 지도부에 힘을 실어 주기로 재신임한 것"이라고 지도부 퇴진은 없음을 분명히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공시실익: 2015-다-76 (2015.06 현재)

혜택도 1st 컬러도 1st 당신이 원하는대로!



1st Card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안내장 및 당행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참고하시거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를 문의하시면 정성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 | JB Card